

공정적인 간호조직문화 확산 매진

서울시간호사회 총회 회원 근로조건 개선 주력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는 제70회 정기총회(제42차 대의원총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스마트 케어' 주제로 3월 14일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홀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올해 공정적인 간호조직문화 조성 확산에 매진하기로 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습관화하고 공정심리를 강화하기 위한 '감사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한다. 회원 근로조건 개선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 수가와 간호 관련 법률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규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환자경험간호' '제난간호' '보건의료정책과 간호'를 개발해 실시할 계획이다.

5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ICN Congress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간호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심



가포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간호교육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월 1회 발간하고, 홈페이지 활성화에 힘쓰는 등 회원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모유수유 및 출산장려 페스티벌, 간호사진전,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간호여성세로 일하기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올해 예산은 69억93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서울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총회에 앞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주제로 김진영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이 특강을 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키로

부산시간호사회 총회 회관에 문화공간 마련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6일 해운대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부산시간호사회는 올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시간호사회 5개년 사업보고서(2012~2016)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복지 활성화를 위해 회관 내 회원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간호학술상을 통해 간호연구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자원 개발 차원에서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간호사 이직 방지 프로그램 등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간호학회상을 통해 간호연구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자원 개발 차원에서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간호사 이직 방지 프로그램 등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정책 관련 대국민 캠페인 전개 및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 관련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간호역사 정립 할

주혜진 기자 hjjo@

간호법 제정에 힘모으기로

인천시간호사회 총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권역센터 운영

인천시간호사회(회장·박효선)는 제22회 대의원총회(제35회 정기총회)를 3월 16일 웨라튼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인천시간호사회는 올해 대한간호협회 정점에 발맞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호정책 관련 공청회에 적극 참석하는 등 대정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인천권역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회원 권익옹호를 위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간호부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원회가 활동으로 신설병원과 중소병원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힘을 예정이다.

인천시 동구보건소로부터 위탁 받은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희망

의 집'을 운영한다. 간호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인천시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11억24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인천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김남초 간호협회 제2부회장 대독)이 격려사를 했다.

홍영표·홍일표·박남춘·윤관석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축사를 했다. 이덕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가 '여성이 모자를 쓸 때 : 초기 간호교육의 역사적 의미' 특강을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키로

울산시간호사회 총회 회원 복지증진 주력

울산시간호사회(회장·류말숙)는 제2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6일 MBC컨벤션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울산시간호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5월 11일 개최키로 했다. 간호사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회원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회원들에게 휴식과 체력의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 '미술심리상담' '바리스타' 등 무료강좌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고, '간호사를 위한 무비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부산·울산·경남권역센터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후간호사들의 교육과 취업연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힘쓰고, 학술대회·초청간담회·간호관리자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보건소 간호직 관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과의 소통 및 간호사회 조직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건강강한 모유수유자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대지역사회사업에 계속 진행키로 했다.

올해 예산은 5억553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울산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송성찬 울산시 복지여성국장 대독), 윤시철 울산시의회의장,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축사를 했다. 박찬동 울산시 북구청장, 박학천·문석주 울산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옥수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추진과제' 특강을 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회원 지위향상 및 권익옹호 주력

보건간호사회 총회 양순옥 회장 재선임

보건간호사회는 제4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7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고 양순옥 현 회장(한림대 간호학부 명예교수·사진)을 재선임했다.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제1부회장= 양숙자(이화여대 간호대학장) △제2부회장= 시연숙(서울시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사= 김경희(강원도 보건정책과 질병관리담당) 김명미(서울시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애(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팀장) 김혜숙(부산시 건강증진과 실무사무관) 나경란(경기도 노인복지과 실무사무관) 서경민(부산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엄수영(경북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대구시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이영철(전남 나주시보건소 실무담당) 함옥경(인하대 간호학과 교수) △감사= 주영순(서울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장) 홍영숙(대구시 수성구보건소장).

보건간호사회는 올해 회원들의 지위향상 및 권익옹호에 매진키로

했다. 보건소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간호직별 배치와 정규직 고용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건간호사의 수단 개선과 상우직급 확보에 힘쓰며 관련 정책 건의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직무교육, 전문화교육, 보건교육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보건의간호사 직급 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 발간할 예정인 보건의간호사 역사서 편찬작업에 매진키로 했다.

올해 예산은 3억95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보건의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총회에 앞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의간호사' 주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대정부 정책활동 적극 참여키로

노인간호사회 총회 최귀윤 회장 선출

노인간호사회는 제13회 정기총회를 3월 18일 가천대 글로벌센터에서 열고 새 회장으로 최귀윤 울산과학기술대 간호학과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제1부회장은 박경숙 중앙대 침십자간호대학 교수, 제2부회장은 김정은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가 뽑혔다.

노인간호사회는 올해 노인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장기요양 관련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노인간호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정책 건의 등에 힘쓰기로 했다.

지회 및 분야회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회가 활동에 주력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간호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노인간호실무 중심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회별 보수교육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회원 역량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노화 심포지엄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

다.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노인간호사와 홍보 전자책자를 발간하는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회원 복지향상 및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연 1회 우수지회 및 회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898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노인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김남초 간호협회 제2부회장 대독)과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총회에 앞서 박승철 전 군산간호대 교수가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간호-사례 중심' 주제로 특강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가정간호 접근성 제고 주력

가정간호사회 총회 가정간호 교통비 수가 개선 건의

가정간호사회(회장·윤영미)는 제24회 정기총회를 3월 17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제2강의실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가정간호사회는 올해 가정간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대상자 권익옹호에 힘쓰기로 했다. 가정간호 교통비 수가 급요율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가정간호 의무 설치를 건의하는 데 매진키로 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상처 및 장루 간호' '감염관리와 최신 경향' '난치성질환의 이해 및 간호' 등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간호사업소 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본 연수를 추진키로 했다.

가정간호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가정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문가방 및 보조가방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보수교육 교재 출간 등 출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상담 및 실태조사를 통해 회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관단체 및 관련 학회의 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가정간호사업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917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가정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추진과제' 주제로 주혜진 기자 hjjo@

주혜진 기자 hjjo@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범제화 힘쓰기로

마취간호사회 총회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 확대 매진

마취간호사회(회장·정계선)는 제39회 정기총회를 3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범제화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전문간호사제도 관련 의뢰별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실습기관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맞이하게 될 마취간호사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간호사회 차원에서 발간을 위해 자료를 수집·정리할 예정이다.

회원 역량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보수교육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다. 회원 증가 및 조직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마취간호사회를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다. 마취간호사들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적 심의에서는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은 479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마취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마취간호사회 차원의 위촉장을 공미정 미시시피대 간호대학 교수(미국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달했다.

총회에 앞서 '마취와 관련된 호흡관리간호' 주제 보수교육이 열렸다. 심폐소생술의 최신경향, 마취관련 회원 증가 및 조직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마취간호사회를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다. 마취간호사들을 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숙현 기자 shkim@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 센터 edu.kna.or.kr

'좋은 간호사' '더 좋은 간호' 평가도구 개발

나는 얼마나 좋은 간호사인가? 나는 더 좋은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됐다.

이와 병행간호사회가 진행한 용역연구 '더 좋은 간호사 되기-질적연구를 바탕으로 도구개발연구'에서 제시됐다. 책임연구원은 박미현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다.

연구결과 '좋은 간호사'의 특성으로 △전문성 △인간관계 △성취감 △공감 △전문직윤리 등 5개 요인 총 26개 문항이 도출됐다.

'더 좋은 간호'의 특성은 △주도적 간호 △성찰적 간호 △성명준중 간호 △공감적 간호 △숙련적 간호 등 5개 요인 총 29개 문항이 도출됐다.

'더 좋은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지리적/안전한 환경 △개인의 역량 △간호정책 등 3가지 요인 총 27개 문항이 도출됐다.

한편 이번 도구개발은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 실시한 '더 좋은 간호사 되기-좋은 간호사, 더 좋은 간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병원간호사들을 심층면담한 질적연구결과를 토대로 좋은 간호사 및 더 좋은 간호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한 후 일반화 과정을 거쳐 하위요인과 최종문항을 도출한 것이다.

5점 척도를 적용해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화했다.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포 상

서울시간호사회 포상

서울시간호사회는 3월 14일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을 포상했다.

△대한간호협회장= 김숙련(전 강동경희대병원 간호본부장) △서울시정장= 박희선(전 서울시어린이병원 간호부장) 윤석란(전 국립정신건강센터 수간호사) 이윤화(전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복미화(서울시간호사회 회무담당) △공로상은 김복순(전 중앙대병원 간호부장) 남상조(전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장) 박정숙(전 세브란스병원 간호담당부원장) 이경숙(전 강동경희대병원 간호팀장) 이명혜(전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정수경(전 경희의료원 간호팀장) 정순주(전 삼육서울병원 간호부장) 최은선(전 강동경희대병원 간호팀장) △우수 간호사= 서초구간호사회, 중구간호사회 △지원근속상(10년)= 한연지(서울시간호사회 회원특별담당).

부산시간호사회 포상

부산시간호사회는 3월 16일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부산시정장= 김광욱(부산대병원 연구지원팀장) 김행자(온천중 보건교사) 정영미(동명대 간호학과 교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장) △감사= 박경희(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남경숙(유유치과 마취과장) △공로= 박경희(전 부산시간호사회장) 정명옥(전 부산시간호사회 제1부회장) 김영희(부산시간호사회 제2부회장) 황순연(부산시간호사회 이사) △간호대학생 나이팅게일 장학금= 김영미(경남정보대 3학년) 최예은(경성대 4학년) 명진경(고신대 3학년) 조은진(대동대 3학년) 성나연(동명대 3학년) 한현준(동서대 3학년) 김수현(동아대 4학년) 이나람(동의과학대 4학년) 이재경(동의대 4학년) 박서은(동주대 3학년) 한다희(부경대 4학년) 박태하(부산가톨릭대 3학년) 최선순(부산과학기술대 4학년) 김의정(부산여대 4학년) 이수환(신라대 4학년) 조성민(인제대 4학년).

인천시간호사회 포상

인천시간호사회는 3월 16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인천시정장= 김미혜(부평세림병원) 김세영(가천대 길병원) 문수지(인천산업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장= 오선영(인천보험심사간호사회) △공로상= 박우숙(연수구지매주간보호센터) 최미자(인천백병원) 황선주(인천보건교사회) △학술상 △대상= 김성미 간호사팀(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우성= 조현정 간호사팀(인천성모병원) 임혜진 간호사팀(가천대 길병원) △대상= 현은정 간호사팀(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한선영 간호사팀(인하대병원) 송수녀 간호사팀(인하대병원) △대상= 박지현 간호사팀(21세기병원).

울산시간호사회 포상

울산시간호사회는 3월 16일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을 포상했다. △대한간호협회장= 박기경(효사랑요양병원 간호부장) △울산시정장= 이해연(울산대병원 간호부장) 송화미(동명대병원 간호부과장) △울산시간호사회회장= 전춘자(대한산보검연합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장) 전주나(울산대병원 교육수간호사).

보건의간호사회 포상

보건의간호사회는 3월 17일 열린 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지회= 울산지회, 강원지회, 경남지회 △모범간호사= 이순영(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장미선(광주시 건강정책과) 이희래(대전시 보건정책과) △유수한 장학금= 이소과(부산시 동래구보건소) 조후선(대전시 중구보건소) 김지향(경남 마산시 창원보건소) △공로= 시연숙(전 서울지회장) 도순복(전 부산지회장) 이정자(전 광주지회장) 이재욱(전 대전지회장) 현혜진(전 강원지회장) 윤혜인(전 충남지회장) 김경희(전 전남지회장) 정경민(전 경남지회장) 고인숙(전 제주지회장) △감사= 양규원(전 서울지회 사무국장) 장미선(전 광주지회 사무국장) 이희래(전 대전지회 사무국장) 최경희(전 강원지회 사무국장) 오영미(전 경남지회 사무국장) 오재복(전 제주지회 사무국장).

가정간호사회 포상

가정간호사회는 3월 17일 총회에서 회원들을 포상했다. △올해의 가정간호인상= 이은영(세브란스병원 가정전문간호사) △공로상은 박영숙(전 부산가정간호사회장), 안정우(전 대전·충남가정간호사회장).

노인간호사회 포상

노인간호사회는 3월 18일 총회에서 회원들을 포상했다. △공로상= 장유호(전 노인간호학회 내성홍분회회장) △우수지회상= 대구·경북노인간호사회, 광주노인간호사회, 대전·충청노인간호사회.